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부 광고
 1. Hallelujah Night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기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교육부에서 Canned Food Drive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마무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 오늘 Flu Shot 접종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교, 심방, 전도, 어린이
- 수요일 오전 성경공부 개강 안내
개강 : 11 월 1 일 (수요일)
시간 / 장소 : 수요일 오전 10 시 교회 사무실
내용 : 묵상 및 기도 나누기, 성경 암송, 교재
교재 : "풍성한 빛" (성경 개론 및 개관 - 20 주)
- 주일예배 찬양팀 모집합니다. : 리더, 보컬, 악기, 악보
- 심방 중입니다. 친교실의 심방 일정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0 월 안내 : 전 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 김 종한 장로 / 시편 43 편

이번 주 친교 : 백 혜옥 집사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친교 : 김 현정 권사 / 윤 정호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4 호

2017 년 10 월 29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0 월 29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28 장(통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 편 김 은영 집사
찬양(Choir)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12:38-42 인도자
설교 (Sermon)	"요나의 표적"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286 장(통 218 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10. 12. 주일 설교 요약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하 20:1-30)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양은 이스라엘의 찬양집인 시편에 후렴구처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실제 역사 속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 영광과 승리, 위기와 절망 -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대상 16:34; 대하 7:3; 대하 20:21; 스 3:11; 렘 33:10). “인자하심”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사랑과 호의가 아니라 언약으로 인해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노래를 진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둘러싼 적들 앞에서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분열된 나라의 반쪽 남왕국에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셔서” 왕조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 자손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가정과 나라의 신앙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 그 자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든든히 붙잡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사밧은 언약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운 때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송은 다급하여 기도할 때 그의 인자를 붙잡기 위해 부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마침내 승리를 거둔 후 기뻐하며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신 격려만을 붙잡고 적들 앞에 섰을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상황이나 감정에 있지 않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영원합니다. 어떻게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는 평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관계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Are you not? Did you not? Will you not?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현재적 관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대껴서 아는 것입니다.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관계 속의 지식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경험의 추억이 지금 눈앞을 가리는 고난과 염려를 이길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장차 우리가 돌아볼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이 되도록 믿음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만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리라는 소망은 헛된 바램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참되고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 5:14).

언약은 조건이나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걸고 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한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고후 1:20).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징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듣고 순종하는 말씀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가 베푸신 놀라운 일들과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